

##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현황과 과제

- ◆ 최근 중국은 달러화 약세에 따른 외환보유고 평가손실과 관리비용 문제를 완화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국제거래에서 위안화 통용을 확대하고자 노력
- ◆ 중국 정부는 무역결제에서 위안화가 더 많이 쓰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위안화 결제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홍콩에 역외 위안화 금융시장을 육성하여 무역상대방이 보유 위안화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아시아의 분업구조를 감안할 때 향후 위안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결제의 중심통화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나  
취약한 금융시스템,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 등에 비추어 본격적 국제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

### 1. 개 요

-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통용시키기 위해 노력
- 위안화의 국제통용은 2003년초부터 접경국가와의 소규모 국경무역에서 시작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위안화를 사용한 무역결제 촉진 및 역외 시장에서의 조달·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본격화

-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달러화 가치하락에 따른 외환보유고 손실 가능성, 과도한 외환보유액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발언권 확대 필요성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 2010.9월말 현재 2조 6,5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의 65%를 달러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화 가치 하락은 막대한 평가손실로 연결
  - 국제거래에서 위안화 활용도가 높아질 경우 외화준비자산의 보유 필요성이 줄어들고 국내 유동성 관리도 용이해질 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환전비용 절감 및 환율변동 리스크 완화 등으로 무역·투자·금융 거래 환경이 개선
  -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위상을 제고할 필요
- 한편 중국은 무역결제에서 위안화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축통화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본거래 개방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
  -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내 금융시스템이 취약하여 자본시장 개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 골드만삭스는 중국 주식시장의 전면 개방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2010.9월)
  - 따라서 중국은 역내자본시장과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력 유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자본시장 개방은 무역결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측\*
  - \* Six Question Regard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MB, 홍콩거래소, 2010.9월

## 2.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 현황과 전망

### (무역결제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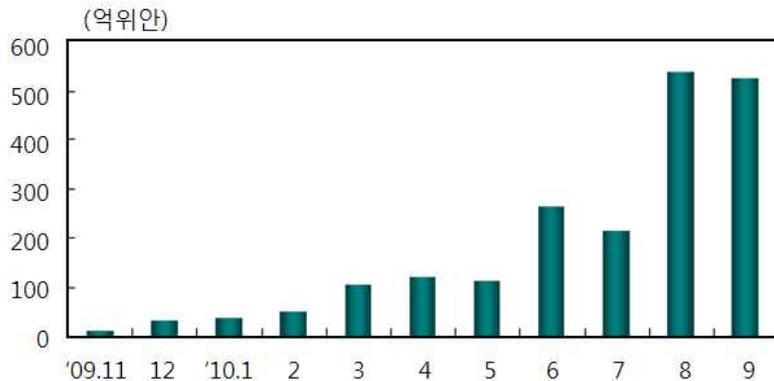
- 통화의 국제화는 무역결제통화 → 투자통화 → 보유통화(reserve money)의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는데 중국은 우선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의 확대전략에 중점
-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
  - 2009.7월 상하이 등 5개 도시와 홍콩·마카오·ASEAN간 위안화 무역 결제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데 이어 2010.6월에는 시범지역을 베이징 등 2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무역결제 대상지역도 전세계로 확대
  - 종전에는 외국기업의 경우 중국에 등록을 해야만 위안화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금년 10.1일부터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 \* 다만 위안화결제 계좌에 예치된 위안화를 외국통화로 환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자금의 사용처를 무역결제로 제한

###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과정

시 기	주요 내용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개 접경국과 상호화폐결제협약 체결</li> <li>- 러시아, 몽골, 북한,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li> </ul>
2004.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안화 국경무역 소액결제 면세 시범 도입(윈난성)</li> </ul>
2009.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 도입</li> <li>- 상하이, 광둥성 4개 도시 ⇔ 홍콩, 마카오, ASEAN 10개국</li> </ul>
2010.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안화 국경무역 소액결제 면세 시범지역 확대</li> <li>- 윈난성, 네이멍구, 광시, 신장, 티베트 자치구 및 동북 3성</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안화 무역결제 해외 대상지역 제한 철폐</li> <li>- 베이징 등 20개 지역 ⇔ 전세계</li> </ul>
2010.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기업 위안화 결제 계좌 개설 허용</li> </ul>

- 이러한 조치들에 힘입어 위안화 무역결제 금액은 2009.3분기 20억 위안에서 2010.3분기에는 1,265억위안으로 급증
- 다만 전체 수출입액(2010.1~9월)중 위안화 결제비중은 1.3%정도로 아직까지 낮은 수준

###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



자료 : 중국인민은행, '2010.3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

- 위안화 무역결제는 접경국과의 국경무역\*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중국의 주요 수입국인 동아시아와의 거래를 중심으로 늘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美달러화 다음가는 결제통화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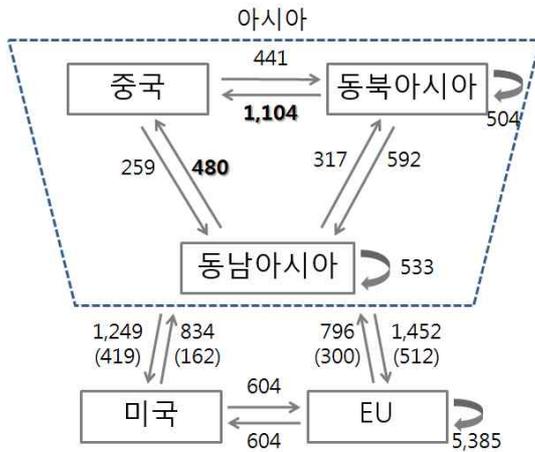
\* 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등 접경국가와의 국경무역은 95%가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위안화가 자국통화와 똑같이 통용되고 있음

-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내 분업체계가 형성되면서 역내 무역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고 특히 중국이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부품의 상당액을 수입하고 있어 이를 통한 위안화 공급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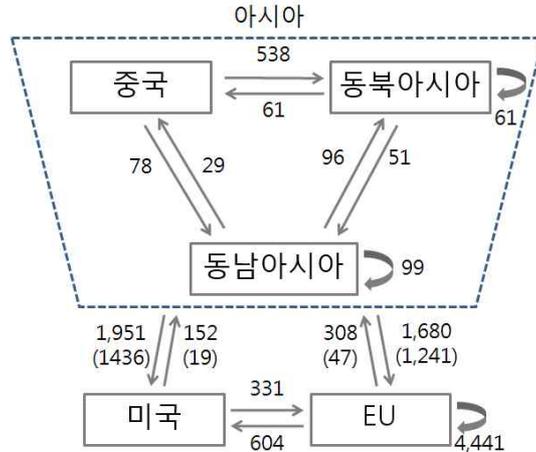
\* ASEAN+3(한, 중, 일 기준) 지역을 기준으로 역내 무역비중은 1980년 29.9% → 2008년 38.5%로 확대

\*\* 현재까지(2009.7월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실시 이후 2010.9월말까지 누계) 위안화 무역결제 누계액(1,971억위안)중 상품수입결제금액(1,571억위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7%

### 아시아 무역중 부품 흐름<sup>1)</sup>



### 아시아 무역중 소비재 흐름<sup>1)</sup>



주 : 1) 2007년 기준, 억달러, ( )내는 중국 교역, 동남아시아는 ASEAN10  
 자료 : UNComtrade data base, 대만 재무부

o 또한 중국 수출을 주도하는 외자기업들이 모기업(또는 홍콩법인)과의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할 경우 동 비중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 특히 아시아 기업은 현지법인-모기업간의 가공무역 비중이 크므로 위안화 결제시 직접적인 이익\*을 수혜

\*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따라 향후 외자기업의 매출중 위안화 비중 증가가 예상되므로 모회사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위안화로 결제함으로써 환위험 축소 및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더 커질 전망

o 최근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안화 무역결제 업무에 적극 진출하고 있어 홍콩거래소는 위안화가 5~10년 안에 무역결제통화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HSBC, SC(Standard Chartered)은행 등은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지정하는 거래처에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씨티그룹, JP모건 등도 위안화결제를 권장하는 로드쇼를 개최(8.27일, Financial Times)

\*\* Six Question Regard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MB, 홍콩거래소, 2010.9월

## ( 홍콩을 중심으로 한 역외 위안화 시장의 육성 )

- 중국의 자본계정은 FDI를 제외하면 부분적으로만 개방\*되어 있어 무역상대방이 위안화를 취득하더라도 운용수단이 부족한 것이 위안화로의 무역결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

\* IMF의 자본규제 유형 정의에 따르면 총 43개 자본계정중 12개 계정은 완전 개방, 16개 계정은 부분개방, 나머지 15개 계정은 대환불가능하여 절반이상의 거래가 규제를 받고 있음(2007년말 기준)

- 이에 중국은 홍콩\*을 중심으로 역외에서 위안화표시 금융시장을 육성함으로써 무역계정을 통해 공급된 위안화의 활용처를 확대

\*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홍콩은 중국의 주권하에 있으나 경제, 금융 면에서 독립적이어서 본토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 없이 금융시장 개방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위안화표시 금융상품 투자 확대 과정

시 기	주요 내용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내 은행 위안화 서비스(예금·환전 등) 개시</li> </ul>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자의 위안화 채권 발행 시범 도입</li> <li>-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li> </ul>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내 위안화표시 채권 발행 시범 허용</li> <li>- 중국재정부, 정책성은행, 주요상업은행 등</li> </ul>
2010.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과 홍콩간 '위안화청산협정 개정안' 체결</li> <li>- 홍콩내 위안화 펀드·보험 판매 허용 등</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내 은행간 채권 시장 개방(일부 외국인투자자)</li> <li>-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각국 중앙은행, 홍콩·마카오 소재 위안화 청산은행, 역외 위안화거래 취급은행 등 3개 그룹</li> </ul>

- 이에 따라 저금리(0.865% 수준) 예금에 한정되어 있던 홍콩의 위안화 금융시장에 고수익의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위안화를 보유한 비거주자들의 투자처 부재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금년 7.19일 중국인민은행과 홍콩금융관리국간 ‘위안화청산협정 개정안’ 체결 이후 HSBC, 스탠다드차터드은행 등 외국은행과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중국 상업은행들이 홍콩에서 다양한 위안화 투자상품을 출시

\* ① 기업의 홍콩내 위안화계좌 개설 제한 해제 ② 보험·증권 등 위안화표시 금융상품 판매 ③ 기업의 위안화 환전액 상한선 철폐 ④ 기업과 개인의 은행 계좌간 위안화 이체 허용 등 (다만 개인의 위안화 환전액 상한선(2만위안)은 유지)

- 또한 2010.8월부터 일부 외국인투자자\*(off-shore bank)에게 국내 채권 시장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홍콩에서 고수익 위안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①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각국 중앙은행 ② 홍콩·마카오 소재 위안화 청산은행 ③ 위안화결제 취급은행 등 3개 그룹

\*\*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홍콩소재 일부은행들이 보유 위안화를 중국내 채권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0.865% 수준에 불과한 위안화 예금 금리가 위안화 채권수익률인 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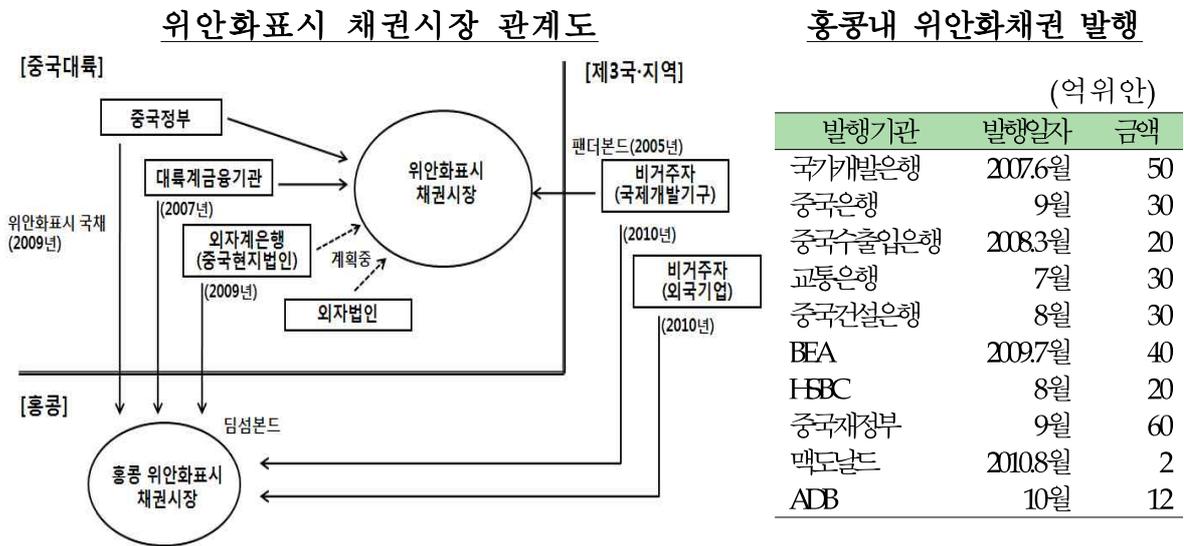
- 한편 역외 위안화 금융상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위안화 공급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무역결제를 통한 공급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당국의 역외 위안화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역외 위안화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

- ① 중앙은행 통화스왑결과 보유한 위안화를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② 본토 상업은행들의 무역금융 확대
- ③ 본토 은행들이 역내 은행간 대출을 이용하여 역외에 위안화 유동성 공급
- ④ 중국 본토기업에 의한 위안화 해외투자 활성화
- ⑤ 시범적으로 본토 보험, 자산운용사가 위안화 역외 시장에 투자
- ⑥ QDII(적격 내국인 기관투자자)가 역외 위안화 시장에 투자

□ 한편 홍콩에서의 위안화 채권발행\*은 2007년부터 본토 중국금융기관이 금융채를 발행하기 시작(일명 덤섬본드, 유로채)하였고 2009년에는 중국 재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2010년에는 외국기업도 회사채를 발행

\* 외국인인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팬더본드(외국채)는 아직까지 발행주체가 국제개발기구로 한정되어 있어 발행규모가 작음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국제채(International Bond)' 참조



□ 다양한 조치의 결과 최근 홍콩의 역외 위안화 시장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

○ 홍콩내 위안화예금이 금년 2월 661억위안에서 8월 1,304억위안으로 6개월만에 두 배이상 급증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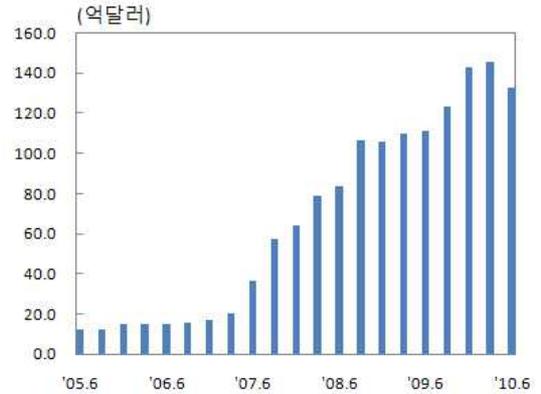
위안화 국제채 발행잔액(홍콩내 위안화표시 채권 포함)도 2010.6월말 현재 133억달러로 2006년말 17억달러에 비해 8배 가까이 급증

### 홍콩내 위안화예금



자료 : CEIC, 홍콩금융관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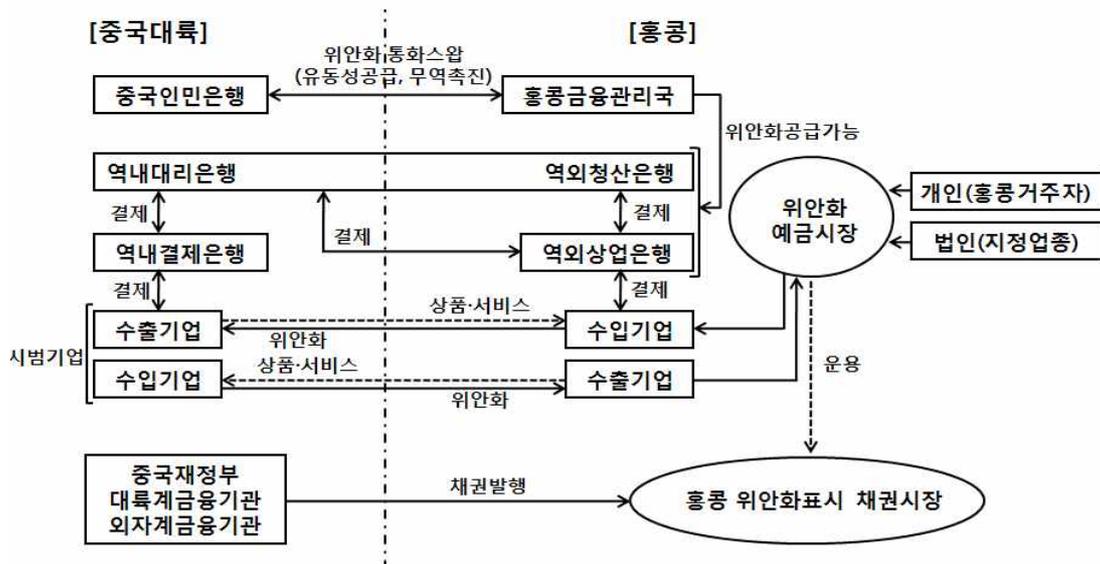
### 위안화표시 국제채 발행잔액



자료 : BIS, Quarterly review(2010.9월)

- 앞으로 위안화 역외시장이 순조롭게 발전하면 위안화를 이용한 무역결제 비중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위안화 역외시장의 확대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이룰 것으로 기대
- 골드만삭스는 향후 5년 후에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와 홍콩의 역외 위안화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홍콩내 위안화 예금비중이 2.3%에서 31.6%까지 확대(3.5조위안)될 것으로 예상

### 역외 위안화 시장 활성화와 위안화 무역결제 흐름



### 3. 향후 과제

(위안화의 국제화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

- 아시아 지역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이 증가하더라도 타지역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달러화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일 것으로 보임
  -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 유럽의 비중이 여전히 크고, 중국 수입에서 큰 비중을 점하는 원자재 거래가 美달러화로 결제되고 있기 때문
    - 중국에 앞서 엔화 국제화를 추진했던 일본도 1980년대 엔화 결제비중이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체(2009년 엔화 결제 비중 : 수출 39.5%, 수입 24.2%)
- 또한 자본거래가 통제되고 있어 아시아지역에서조차 투자통화(위안화표시 금융자산의 국제거래) 및 보유통화(위안화 대외준비자산)로서 달러화와 같은 위치를 정립하는 데는 한계
  - 최근 홍콩 위안화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위안화 금융상품 투자가 용이해지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위안화 무역결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요건 및 시장규모가 제한적
  - 위안화의 준비자산으로서의 기능은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을 위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 본토의 자본시장 개방 없이는 큰 폭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

\* 중국인민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개국 중앙은행과 8,035억위안(2010년 8월말 기준)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

- 외환거래에서 무역거래보다는 금융거래 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국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의 거래가 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화되고 개방된 금융시스템이 필요\*

\* <참고 2> '주요 국제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과 일본의 사례' 참조

### (위안화의 본격적 국제화를 위해서는 자본자유화가 선결조건)

□ 중국이 국제거래에서 위안화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역외 금융시장 위주의 제한적인 개방에서 벗어나 역내 금융시장 발전을 가속화하면서 자본 유출입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선결조건

- 이를 의식하여 중국 금융당국도 현재 추진중인 홍콩 역외시장(off-shore market) 활성화와 병행하여 상하이를 중심으로 역내시장(on-shore market)의 경쟁력 향상과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

— 홍콩은 역외금융센터로서 중국 국내 금융시장이 성숙되기 이전까지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고,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투자 및 자금조달을 점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

— 최근 이러한 차원에서 QFII(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Mini QFII\* 도입, 상하이 국제판\*\* 개설 등 중국 증권시장의 개방도를 높여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책을 검토중

\* 홍콩소재 적격외국인기관 투자자(Mini-QFII)들이 홍콩에 진출한 중국계 금융기관을 통해 역외 위안화를 중국 본토 주식(A주)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역외기업(해외기업 및 홍콩 레드칩)이 중국 본토 주식시장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자본거래의 완전한 개방은 상하이 국제금융 센터 구상 목표시기인 2020년이 돼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점을 계기로 위안화가 투자통화 및 보유통화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홍콩거래소는 위안화가 투자통화 및 준비통화로서 기능하는데 각각 10,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참고 1>

### 국제채(International Bond)

□ 국제채는 외국채(Foreign bond)와 유로채(Euro bond)로 구분

○ 외국채란 외국의 차입자가 발행지 국가의 통화 표시로 발행한 채권을 의미하며 발행지의 상징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

— 예를 들면 미국기업이 중국 채권시장에서 발행한 위안화표시 채권을 팬더본드라고 부르며

미국, 영국, 일본, 한국에서 발행되는 외국채는 각각 양키본드, 불독본드, 사무라이본드, 아리랑본드로 명명

○ 유로채\*란 채권의 표시통화 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유로표시통화 채권'으로 명칭

\* 유로의 어원은 美달러화가 미국 이외의 지역중 주로 유럽지역에 편중되어 예치됨에 따라 유럽에 있는 달러라는 의미로 '유로달러'라고 불린데서 유래되었으며 어느 한 나라의 통화가 해당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래된다는 의미로 사용

— 다만 홍콩에서 발행된 유로-위안 채권은 딴심본드라고 함

<참고 2>

국제통화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과 일본의 사례

□ 국제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통화표시 금융상품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어 투자 및 보유통화로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 시장 발전 및 개방이 중요한 과제

○ 세계 연간 무역금액은 연간 32조달러인 반면 금융자산의 국제거래 금액은 175조달러(2009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에서 국제통화의 위상은 무역거래 결제(trade invoicing)규모보다는 얼마나 많은 금융자산이 자국 통화로 표시(financial denomination)되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지가 중요\*

\* 실제 영국 파운드나 스위스 프랑은 무역거래에서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나 세계 외환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

— 1980년대 엔화 국제화를 추진했던 일본의 경우 엔화 무역결제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투자통화 및 보유통화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국제통화로서의 위상도 약화\*

\* 일본이 1984년 엔화 국제화를 공식화한 이후 엔화 무역 결제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엔화 결제 비중 1980년 수출 29.4%, 수입 2.4% → 2009년 수출 39.5%, 수입 24.2%)

엔화표시 금융자산의 국제거래(국내은행의 해외 대출, 국제채 발행, 엔화 준비 자산보유 등)비중이 감소하면서 세계전체 외환거래중 엔화 비중이 1989년 13.5%를 정점으로 2010년 9.5%까지 하락

— 반면 유로화의 경우 유로 이외 지역에서의 무역결제 확대는 제한적이었으나 국제자금시장(International Money Market) 및 국제채 시장에서 유로화 표시 비중이 2009년 각각 45%, 48%로 美달러화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하면서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이 크게 강화

○ 한편 자국통화 금융상품의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선진화 및 개방이 뒷받침되어야 가능

— 일본의 투자 및 보유통화로서의 위상 약화는 일본이 1980년대부터 금융시장 개방 및 엔화 자유태환을 실시했음에도 국제적인 금융센터 및 금융기관을 육성하지 못한데 기인

□ 1980년대 엔화 국제화를 추진하던 시기와 현재 중국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무역결제 측면에서는 중국이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엔화 국제화의 주요 실패 원인인 금융·자본시장의 경쟁력 및 개방도면에서 중국이 훨씬 취약한 상황 이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

① 무역결제 측면

- 유사점 : 현재 중국(당시 일본)은 對美의존도 및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아 수출시 위안화(엔화)결제비율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 차이점 : 최근 아시아지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분업체계가 긴밀해지면서 역내 무역비중\*이 확대되었고 지역내 경제협력도 긴밀

\* 1980년 28.9% → 2008년 38.5% (ASEAN+3(한국·중국·일본) 기준, IMF DOT)

② 금융·자본시장 측면

- 유사점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등 국제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외기업들이 위안화(엔화)로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차이점 : 당시 일본은 1964년 IMF 8조국 이행과 OECD 가입 이래 1980년 신 외환법 개정을 거치면서 자본자유화 및 금리자유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던 반면 현재 중국은 FDI유입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본계정이 통제되고 있으며, 금리자유화 수준도 낮아 국내금융기관의 자생력이 취약한 구조

③ 통화가치 및 경제의 안정성 측면

- 유사점 : 당시 일본과 현재 중국은 수출중심의 고성장을 통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위상을 차지
- 차이점 : 당시 일본은 플라자합의 이후 급격한 엔화절상에 따른 장기침체를 겪으면서 엔화가치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었던 반면 현재 중국은 당시 일본의 사례를 교훈 삼아 점진적 위안화 절상을 고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